현장에 선 여성연구자

테무코에서 만난, 연구자로서 나의 정체성

박 윤 주

'현장에 선 여성학자'라는 주제의 원고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써야할지 난감했다. 현장에 대한 이야기일까 혹은 여성학자에 대한 이야기일까? 《트랜스라틴》의 설명에 의하면, 여성의 시각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으나 다소 우둔한 나로서는 여성학자라는 그룹으로 묶인다는 것도 퍽이나 낯설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과연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현장에서 다른 경험 혹은 시각을 얻었던가를 생각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지난 날 현장조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부딪친 연구자로서 정체성에 관한 고민, 그 암담했던 심정,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느꼈던 약간의 희망 등등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트랜스라틴》의 기획 의도와 다소 어긋날지도 모르겠으나 내 고민, 즉 소위 현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야 하는 연구자로서 겪은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얘기해보기로 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어설픈 경험담이지만 후일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

노력과 실패를 사례라는 이름으로 객체화하고 수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늘에서 바라 본 테무코 전경

당신은 누구인가?

2002년 12월 어느 날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던 칠레 테무코(Temuco) 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현장의 낯설음에 만족하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서 비행기에 올랐는데, 테무코의 한여름에 떨어졌으니 마치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 같았다. 가벼운 반팔 차림의 인파 속에서 두툼한 외투를 둘러매고 있는 내 모습은 확실한 타자 혹은 외부자 (outsider)였다. 완벽하게 이질적인 공간에 왔다는 느낌은 아마도 현장조사를 해본 많은 연구자들이 느끼는 일종의 안도감일 수도 있다. 이질적인 곳에 와서 이질적인 그들을 연구하고 가능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분석한다는 것이야말로 역사 이래 제3세계 곳곳을 누벼왔던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더욱 넓은 의미로는 지역학자들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내 연구주제는 이 낯선 칠레에서도 또한 더욱 낯선 마푸체 공동체와 마푸체인들에게 주어진 혹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으니, 흔히 말하듯이 과학적이고 실증적 연구를 위한 환상적인 사례 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지는 택시를 타면서부터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제법 묵직한 짐을 들고 하숙집으로

향하는 나에게 택시기사는 왜 테무코에 왔는지 물었다. 연구하러 왔다고 하니, 무엇을 연구하느냐고 또 물었다. 아라우카니아 남부의 마푸체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상호문화교류 의료프로그램(Intercultural Health Services)을 연구하러 왔다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대뜸 이렇게 반문했다. "왜? 너무 희한해서?"

그 질문에는 분명 왜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도대체 한국에서 온 당신이 어떻게 우리들 사정을 이해하며, 무엇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아가 자신들의 삶을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마냥 관찰하러 왔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쾌감도 숨기지 않고 있었다. 나는 마치 논문계획서를 심사 받듯이 택시기사에게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마푸체의 상호문화교류 의료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였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마푸체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꼭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푸체, 마푸체하고 떠들어댄다. 나는 그런 외국인들이 과연 마푸체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택시기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마푸체 공동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다소 낭만적인 접근이 마푸체가 아닌 칠레인들에게는 거슬린다는 것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의구심 앞에서 나는 택시기사의 인종관보다는 현장조사에 나선 학자로서 나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다. 과연 나는 누구이기에 낯선 땅에 와서 그야말로 낯선 주제를 연구하겠다는 것일까? 정말 내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이들의 삶을 피상적 혹은 객관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시도들의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과연 그런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한가? 택시기사의 주장처럼 외부자로서 지역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부자(insider)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면, 그 세계를 무시한 채 내 연구

주제에 대한 진리 탐구가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외부자인가? 외부자의 시각으로 온전한 연구가 가능한가? 이런 고민은 방법론 수업 이후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론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알았던 고민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안에서부터 몸으로 겪어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이 낯선 땅의 독특한 사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담아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도착한 현지에서 '과연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으니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이내 외부자 또는 타자로서 '나'를 순식간에 포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택시기사에게 한국에 존재하는 양·한방 혼합 의료서비스를 이야기하며 마푸체 공동체가 만들려고 하는 상호문화교류 의료프로그램이 결코 나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외부자라고 단언하지 말라고, 나도 알고 보면 상당히 내부자에 가깝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듯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적인 연구자로서 내가 견지해야 할 거리는 테무코에 도착한 지 10여분 만에 도전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자가 되려는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른 사건은 마푸체 운동가들을 만난 것이었다. 물론 이들 역시 테무코 공항에서 만난 택시기사처럼 내가 어떻게 마푸체의 상호문화교류 의료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연구자로서 내 정체성을 완벽한 외부자라고 규정한 쪽은 역설적이게도 마푸체인들이었고, 그렇지 않다며 내부자적 요소를 강조한 쪽은 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공항의 택시기사와는 달리 마푸체 운동가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것은 내가 윈카(winka), 다시 말해서 백인들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왔다는 점이었다.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백인들이 지배하는 나라

미국에서 온 한국인이 어떻게 제국주의와 인종주의의 피해자인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미국적 시각으로 과연 칠레나 마푸체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겠느냐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나의 시각이 미국적인 것은 아닌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사과정부터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누가 봐도 미국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그러한가? 더 나아가 마푸체 운동가들의 주장처럼 세상에는 미국적 시각, 즉 외부자의 시각과 마푸체의 시각 즉 내부자의 시각만이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부하였으나 미국의 시각에 가장 비판적인 소리를 많이 내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서 몸담고 있었다면? 그리고 다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성향에 민감한 한국인이라면? 나아가 양방과 한방의 조화롭고 평등한 통합에 늘 관심이 많았다면? 나는 갑자기 택시기사와 마푸체 운동가들의 외부자 만들기에 심각하게 반항하기 시작하였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던가? 오직 외부자와 내부자만 존재할까? 현장조사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경계를 만든 것이야말로 연구와 연구자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어설픈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즉 방법론 수업에서 몇 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연구했던 기라성 같은 실증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이에 반하는 여성주의적이고 탈근대적인 시각 또한 상당히 편협한 것이었다는 불경한 생각이 들었다.

외부자와 내부자 사이

사회과학을 한다는 이들이 인간을 과연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씨름하던 즈음에 지역학을 하는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 섬나라의 원

주민 부족들을 따라다녔다. 따라서 지역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다른 사회과학의 분야에서는 포기하거나 혹은 의심했던 '외부자 되기' 시도가 오랜 시간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왔으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연구하던 학자들에 비하여 외부자라는 입장을 변호하기 쉬웠던 것이다.

Learning from the Outsider Within: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Black Feminist Thought*

PATRICIA HILL COLLINS, *University of Cincinnati*

패트리샤 힐 콜린스(왼쪽 사진)와 《사회문제 Social Problems》(1986)에 실린 논문.

주지하다시피 사회과학은 인간사에 대한 연구도 자연과학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실험용 쥐에 온갖 약물을 투여하는 과학자들이 쥐에게는 완벽하게 외부자인 것처럼 사회과학자들은 연구대상에게 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타인이 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은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치우침 없는 연구를 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의 대상과 거리를 두었고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를 고안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이내 도전받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기득권의 시각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 쏟아졌다. 사회과학이란 그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만든 지배도구는 아니냐는 것이었다. 과학의 대상으로 전락한 피지배자들의 시각을 철저히 배제하는 소위 타자되기 과정은 그 자체가 억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머튼이 지적한 것처럼, 더 이상 사회과학 방법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

각의 주장을 펴는 학자들 간의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1986년 콜린스는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자'(outsider within)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내부자의 시각을 온전히 이해하지만 동시에 연구의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콜린스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연구자는 내부자이자 곧 외부자인 사람들, 즉 연구대상이자 곧 연구자인 사람들이다.

외부자 또는 내부자로서 연구자의 입지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콜린스의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자'라는 개념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래서인지 콜린스의 논문 발표 이후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진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역학자의 한 사람으로 나는 콜린스의 이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자가 될 수 없는 지역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한 이론일 뿐 아니라 연구자의 입지는 단순히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자인가 내부자인가라는 토론 속에서 마푸체도 윈카도 아닌 나는, 내부자도 외부자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입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나의 이 어정쩡한 위치가 연구에 장애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점이라는 다소 당돌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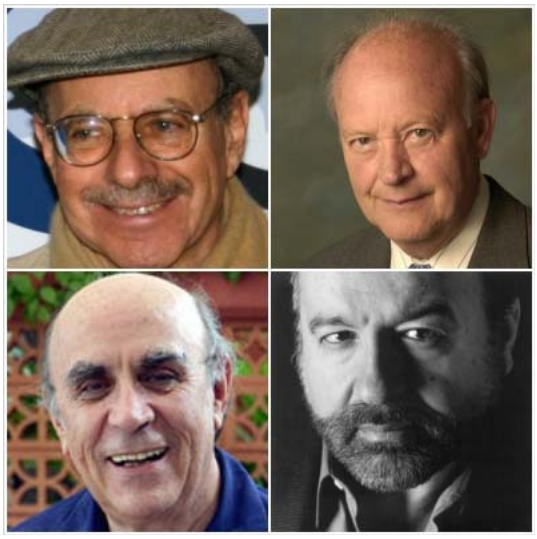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윈카도 마푸체도 아닌데 왜 마푸체 공동체에 대해 그리 관심이 많으냐고 끊임없이 취조를 당했지만 동시에 윈카가 아니니 안심이라는 이들과 마푸체가 아니니 안심이라는 이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윈카나 마푸체라면 들을 수 없는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 이도 저도 아닌 나의 위치 때문에 칠레 사회의 인종관계 속에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다양한 당사자들

은 안심하고 속내를 드러냈다. 나는 안에 있는 외부자도 아니고 밖에 있는 내부자도 아닌 제3의 무엇이었으며, 동시에 외부자도 내부자도 될 수 있는 다면성이 존재했고, 이 모호하고 규정불가능한 입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묘한 동질감과 이질감을 한꺼번에 안겨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감히 단언컨대 이 '이상한' 나의 입지가 나의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소위 서구적 시각과 건강한 긴장의 거리를 둘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가슴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 말이다. 어떻게 보면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서구도 아니고 라틴아메리카도 아닌, 이 두 대륙을 모두 이해하고 또 동시에 거리를 둘 수 있는 제3의 지역이 아닐까?

이쯤에서 나는 현장조사에 임하는 연구자의 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이미 세계화된 연구 풍토 속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존의 외부자 및 내부자의 논의는 어찌 보면 지배 혹은 억압을 행사하던 문화집단과 지배 혹은 억압을 당하는 문화집단 간에 일어나는 '연구'에 대한 것이었다면, 연구자 집단이 다양해진 요즘 특히 지역학에서는 이 내부자 혹은 외부자의 틀에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이라든가 한국을 연구하는 라틴아메리카 학자들,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동남아 학자들이라든가 동남아를 연구하는 중동의 학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내부자와 외부자 논의가 상정하고 있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간의 권력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는 기존의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틀이 새로운 종류의 연구자들의 출현과 함께 구태의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언제나 다양한 시각이 허

락되는 학문 풍토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당위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제3의 입장, 즉 제국주의적 입장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민족적인 입장도 아닌, 제3의 입장이 갖고 있는 학술적 가치 때문이다. 진심으로 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제3의 지역에서 연구하는 것이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고민의 시작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임스 페트라스, 존 윌리엄슨, 에르난도 데 소토, 구스타보 에스테바.

이렇듯 현장조사를 위해 칠레 남부의 테무코에 도착하던 날부터 시작된 연구자로서 내 정체성에 관한 고민은 조사를 계속하고 더욱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협조와 대화 그리고 조언 속에서 치유되었다. 아니, 단순히 해결되었다거나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서구 출신도 아니고 라틴아메리카 출신도 아닌 나의 배경이 오히려 연구에 도움이 되며, 내 연구가 세계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도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내가 현장에서 느낀 한 가지 고민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미국적 시각을 갖고 돌아온 것 아

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어떤 분들을 미국의 학계 인사들은 미국적 시각을, 라틴아메리카 학계는 라틴아메리카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마치 미국학계의 시각은 극복 대상이고 라틴아메리카적 시각은 배움의 대상인 양 말하기도 하였다. 정말 그러할까?

내가 테무코에서 정체성에 대해 그 나름으로는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알아낸 사실은 연구대상의 정체성이 다양한 만큼이나 연구자의 정체성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미국학계라고 부르는 집단 안에 제임스 페트라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창시자인 존 윌리엄슨이 공존하듯이, 라틴아메리카 학계 안에도 구스타보 에스테바와 에르난도 데 소토가 공존하지 않는가? 결국 세계화된 학계에서 지역적 기반이나 국적을 중심으로 학계의 풍토 등을 나누는 일이 구태의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나는 누군가라는 연구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한 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것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인간사를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어쩌면 한평생 겸허하게 끊임없이 물어야하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대답은 언제나 건설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연구 대상과 꾸준한 대화와 소통 속에서 연구자의 정체성 또한 진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칠레의 테무코에서, 누에바임페리알에서, 핀타나에서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이 나에게 나누어준 그들의 역사와 삶이 오늘 연구자로서 내 정체성을 형성했듯이 앞으로 내가 만날 모든 이들의 사연이 앞으로 연구자로서 내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윤주 –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논문으로는 「사회적 행위주체와 칠레의 다문화주의 사회정책」이 있다.